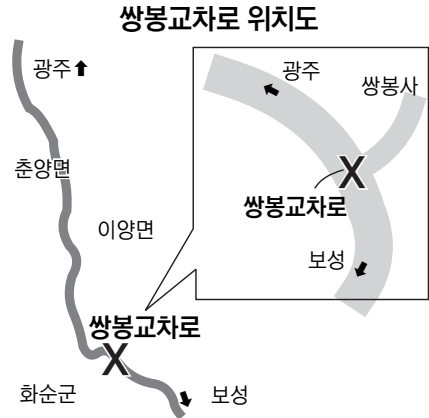


내리막길 급커브에 갑작스런 신호등... '공포의 교차로'

국도 29호선 화순~보성간 쌍봉교차로 잦은 사고 원인은 애초 입체교차로 설계했다가 주민 반대에 평면교차로로 익산국도청은 예산부족 등 이유 근본 대책 6개월간 방치

최근 잇단 대형 교통사고 발생으로 '공포의 교차로'로 불리는 국도 29호선 쌍봉교차로의 사고발생 원인이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 후 정부가 쌍봉 교차로 사고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차로 교차방향을 변경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평면교차로로 입체교차로로 변경하지 않았고, 최근 또 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장소·같은 원인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자 1명이 더 생긴 것이다. 탑승객 3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정부의 안일한 안전 대책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도로확장 전후 교통사고 비교해 보니

- 확장 개통전(양복 2차로) 2006년~2010년 1건 인명피해는 없어
- 확장 개통후(양복 4차로) 2010년~2014년 5월 현재 12건 6명 사망, 중상 13명, 경상 13명

치대 운전자들이 미처 급정지를 못하고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졌던 것이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교통안전공단 '쌍봉교차로 사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국도(29호선)는 입체 교차로가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신호등 교차로가 특별한 안내도 없이 나타나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신호



지난 12일 화순군 이양면 쌍봉교차로 앞(29호선·화순~보성구간)에서 24t 트레일러(운전자 박모씨·44)가 앞서 가던 12t 화물차(운전자 심모씨·54)를 추돌,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5m 아래로 추락해 있다. 이날 사고로 박씨가 숨지고 심씨가 중상을 입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등이 없는 교차로만 달려온 운전자에게 갑자기 내리막 급커브에서 신호등 교차로가 나타나 '운전자 기대 심리'에 어긋난 결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쌍봉교차로(확장 전 매정삼거리)에서는 ▲확장 개통전인 2006년~2010년 경미한 교통사고 단 1건이었던 것이 ▲확장 개통후 지금까지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중상 13명, 경상 13명으로 발생 건수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쌍봉교차로 사고 예방 '핵심

대책'은 교차로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애초 쌍봉교차로는 입체 교차로로 설계됐으나 주민 등의 반대로 평면교차로로 만들어졌다. 입체 교차로 건설에만 적어도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교통당국은 보고 있다. 국도 건설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으로 지목된 입체 교차로 건설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보고서가 나온지 5개월이 넘도록 교차로 설계 용역도 의뢰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5000만 원을 들여 교차로 부근에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하고 경보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을

보강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입체 교차로 건설은 지난해 11월9일 쌍봉교차로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당국이 조사한 보고서의 핵심사항이었으나,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기적 대책'으로 설정한 채 6개월간 방치했다. 이후 지난 12일 같은 장소에서 또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추돌 사고 현장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커브길을 지나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KBS 새노조 총파업 가결 김환영 사장 퇴진 촉구 광주 보도국장 등 8명 보직사퇴

KBS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23일 94.3%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이날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발하는 직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처가 격화되고 있다. 기자·PD 직군 중심의 새노조는 21~23일 시행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94.3%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노조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찬성률이다. 새노조는 KBS 노동조합(1노조)이 마찬가지로 김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27일을 기한으로 별도 총파업 투표를 실시중인 점 등을 고려해 파업 돌입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KBS PD협회 소속 PD 600여명은 이날 하루 24시간 동안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했다. 한편 광주 등 KBS 9개 지역총국 보도국장 가운데 8명이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22일 보직에서 사퇴했다고 광주방송총국이 밝혔다. 이들은 사내게시판에 올린 성명에서 "지역 KBS 뉴스를 책임지는 보직 간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히고, 김 사장 해임 제청안과 관련 KBS 이사회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KBS 전국기자협회와 전국촬영기자협회는 "노조국장들의 (이번) 사퇴 성명을 환영하며 공정방송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이낙연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추가 구속

'당비 대납 의혹' 수사 관심

검찰이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당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 이 후보 측 관계자를 추가로 구속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 10여명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정지권 예상과는 달리, 검찰 내부에서 "끝난 것 아니다"며 의혹과 진상을 밝혀줬다는 의지가 일하고 있어서다. 광주지검은 25일 이 후보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역사무소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 영장전담 관대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이후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비서관, 지역사무소 관계자 등 3명으로 늘었다. 특히 검찰이 이날 구속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뿐 아니라 앞서 당비 대납 혐의로 구속된 비서관 모두 선관위 고발 당사자들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단호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검찰은 또 당비 대납과 관련 있는 지역 모집책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하며 전반적인 대납 규모를 파악한 상태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당비 대납 자금의 출처 및 불법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당비 대납 행위의 위헌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의 입수수색과

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속 1억 원 짜리 수표 6장 사진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종진)는 이미 전남도 선관위 고발 규모보다 당비 대납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한 상태다. 앞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일 2만6117명의 당비 31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로 이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을 지난달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 이낙연·주승용 의원 측 관계자 10여명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검찰 "유병언 최근 순천에 머물렀다"

유씨 부자 현상금 6억으로 올려

"앞머리가 빠진 것을 보니, 유대군씨와 닮았더라. 방금 광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는 지난 16일 광주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신고 접수된 내용 중 한 대목이다. 최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군(44)씨에 대한 현상금이 6억원까지 오른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유씨 부자를 목격했다는 제보전화까지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오인 신고로 확인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유씨 부자 목격 제보건수는 모두 11건. 이중 광주는 1건이

며, 전남은 10건 이상이다. 지역별로는 광주를 포함 여수·보성·순천·영암·장성 등이다. 특히 검찰이 이날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순천에 머물렀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23일 유씨 부자가 탄 차량이 여수에 나타났다는 제보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 인천지검이 유병언 도주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구원과 신도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준 순천에 사는 노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유 전 회장의 전남지역 도피행각에 수사당국이 초비상 상태다. 경찰은 일부 신도들이 검거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 제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유씨 부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선거벽보 뜯어 행패 부린 취객

○경로당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뜯어내 종이문지를 만든 뒤 동네 어른들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25일 영광경찰청에 따르면 Y(58)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20분경 영광군 법성면 여자 경로당 앞에 붙여진 가로 38cm·세로 53cm 크기의 선거 벽보 19장을 뜯어내 뒤 종이 문지를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 ○경찰은 이날 Y씨가 종이문지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Y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는데, Y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원룸,상가,오피스텔 매매 (주)대신 010-6670-9800

- ★신축 원룸 (전대상대 2분 거리)
 - 용봉지구, 미래도 APT 입구 코너
 - 신축 4층, 룸 21개
 - 1층 상가 2칸, 4층 고급주택
 - 엘리베이터 완비, 전체 대리석 시공
 - 월수입 900만원(년 1억800만)
 - 매가 11억5천(보 1억, 웅 4억)
- ★신축 원룸 (전대후문 2분 거리)
 - 흥중동, 신축 4층, 룸 12개
 - 1층 점포 1칸, 원룸 10개, 4층 주택 1개
 - 월수입 450만원, 매가 6억5천
- ★나주 이창동 원룸 (4층)
 - 룸 19개, 월수익 570만
 - 매가 4억2천(웅 1억, 보 3천만)
- ★수완지구 상가 (3층)
 - 신한은행 뒤, 모아엘가 APT 상가 맞은편
 - 주위 6000세대 APT 밀집
 - 4층 건물중 3층, 85P
 - 월수익 200만(년 2400만 수익)
 - 매가 3억5천(웅 2억5천, 보 3천)
- ★첨단지구 상가 2층, 62P
 - 부영 APT 맞은편, 오션스파 2층
 - 월수입 80만(년 1760만)
 - 매가 1억7천(웅 9천, 보 1천)
- ★원룸형 오피스텔(쌍촌동)
 - 운천역 1번 출구 3분거리
 - 원룸(10P)-매가 3400만(보200만월27만, 웅1천)
 - 원룸(11P)-매가 3500만(보200만월27만, 웅1천)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주최 3개월 완성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 원하는 물건을
 -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 / 직원 모집 남 : 45세이하, 사무 및 기타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여 : 45세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